

## 대환난은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1)

- 읽을 말씀 계 11:1-13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8-9장이 전 삼년 반에 대한 예언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환난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근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난은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이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이기 때문입니다. 70이레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해 정한 기간이므로 마지막 이레, 특히 대환난은 반드시 유대인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니엘과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모두 대환난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단 12:1)"**고 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도피하여 환난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여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대환난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며 그것을 예언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마 24:15-16)",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마 24:20)"**라고 하셨는데, 모두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약 1.2Km)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살후 2:3-4). 천년왕국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에서 지구를 다스리시고, 그 후 새 예루살렘성에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를 흉내 내며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 마태복음, 데살로니가후서 모두 대환난을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도 대환난을 교회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계시록을 읽어보면 대환난을 교회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인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7장과 14장에 열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이 나옵니다. 11장에 교회가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성전 바깥뜰과 예루살렘성이 나옵니다. 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활동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를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장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인은 요셉의 꿈 즉 유대민족을 상기시키는 해와 달과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대환난에 대한 계시록의 기록이 유대인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 맞는지 학자들이 교회로 착각한 것들의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성전과 제단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은 실체가 아닙니다(계 11:1-2). 왜냐하면 실제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되었고 그때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나타날 제3성전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과 바울이 예언한대로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까지 들어가는데, 성전 안은 보호를 받는다는 위 구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성전이 교회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전 3:16-17, 고후 6:16, 엡 2:20-22).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전이 교회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성전과 제단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 뿐 아니라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까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교회를 뜻한 구절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교회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2) 모세와 엘리야와 방불한 두 증인도 교회가 아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고 나옵니다(3-13). 이것은 그들의 예언사역의 핵심이 ‘회개’이며,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회개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9:20, 16:9)**”라는 안타까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아픈 법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 말고 지금 곧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주님의 근심과 고통을 나누어지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증인이 누구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두 증인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증인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너무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비일은 두 증인에 대해 “이 예언자들이 두 개인이 아니라는 마지막 단서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능력이 두 증인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나뉘지 않았다... 그들은 동일한 예언자적 쌍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든 엘리야든 그들이 성경에서 행한 기적만 다시 행할 수 있을까요? 은사와 기적은 성령의 나타남이므로 필요한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떤 기적이든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 임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한수 교수님도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는데(7절) 짐승이 교회공동체가 아니라 개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장면이다.” 라고 하시며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원어 “폴레모스”는 “전쟁, 싸움, 논쟁, 다툼”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많은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전쟁이 아니라 싸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근거로 이들이 교회 공동체이며 두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수 교수님은 “두 증인은 4절에서 ‘두 촛대’로 명명되는데, 사

실 두 촛대는 1~2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술어이지 개인들을 가리키는 술어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촛대라는 표현 역시 이들이 교회를 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성전이나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 전체로도 성도 개개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촛대라면 성도들 개개인도 촛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촛대는 성전의 등잔대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역시 세상의 빛입니다(마 5:14-16). 주목할 점은, 여기에 등불과 빛을 뜻하는 “뤼크노스” 라는 단어뿐 아니라 계시록의 촛대와 등경을 뜻하는 “뤼크니아”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뤼크노스는 등불 자체를 의미하고 뤼크니아는 촛대 혹은 등경까지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개개인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둘 다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 경우처럼 두 증인의 역할을 촛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부르기 전에 두 감람나무라고 불렀습니다.(계 11:4, 슥 4:11-14). 이것은 스가랴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교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뜻했습니다. 더구나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슥 4:14)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계 11:4) 등 표현까지 서로 일치하지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10절에서 “두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두 명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 ● 나눔과 적용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은 회개를 외치지만 많은 이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영혼들을 위한 애타는 중보기도로 주님의 근심과 고통을 깨닫게 하신 은혜들을 나누어 봅시다.